

(붙임 1)

사진 자료



<일본 중의원 일행 방문>



<일본 참의원 일행 방문>



<‘류큐의 바람: 오키나와의 춤과 노래’ 공연>

‘오키나와 전통 문화 엿보기’ 소개 자료

2013년 한중일 3개국 문화장관 회의에서 제안된 [동아시아 문화사절단] 사업의 일환으로 이전에 일본 문화청이 파견하는 오키나와 산신연주자인 이케다 스구르 씨와 함께 오키나와 민요 및 전통무용을 엿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.

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는 ‘류큐(琉球)왕국의 보물, 특별전(2014.12.9.~2015.2.8.)과 더불어 한때 우리나라와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활발히 교류하던 류큐(琉球) 왕국의 전통문화를 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.

무대는 1/2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1부에서는 오키나와의 지리와 역사를 소개하고 그 곳의 전통 예술과 음악을 소개합니다. 찬란했던 류큐(琉球)왕실 시대의 궁중음악과 무용 및 동시대에 유행했던 서민들의 노래를 오키나와 본도(本島)와 아에야마(八重山) 제도의 민요를 중심으로 소개합니다.

2부에서는 오키나와 전통 악기인 사미센 연주자인 이케다 스구르의 라이브 콘서트를 통해 ‘민요의 보고’ 인 이리모테(伊呂歌)를 비롯, 인기 여러 섬의 민요와 그의 창작곡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.

일시 2015.1.28(수) 오후 3시~
장소 국립고궁박물관 로비
주최 국립고궁박물관, 문화체육관광부
협력 문화원
협력 주한일본대사관 경보문화원, (재)오키나와관광개발진흥부
문의 고궁박물관전시홍보과:02-3701-7633,
일본국제교류기구 서울문화센터(02-397-2825)



오키나와 전통문화 엿보기

Artist Profile

- 도미타 메구미 (冨田めぐみ) : 프로듀서**
[아비뇽예술제OFF]에서 연출가로 데뷔 (류큐예술대상)이라는 기획사 대표. 국립극장오키나와공연사업위원
- 치바나 사유리 (知花小百合) : 무용**
오키나와현립예술대학원 수료, [후야(後夜) 사범, 오키나와현립예술대학 학원 강사.
- 가미야 카나코 (神谷加奈子) : 무용**
오키나와현립예술대학 졸업, 류큐신보시교전예술공화(무용)에서 최고상 수상.
- 도메 요시아키 (當盛由亮) : 무용**
노무리류음악학식 (三辨) 교사, 라디오오키나와의 [민요의 꽃다발]의 진행자
- 하나시로 히데키 (花城英樹) : 민요**
오키나와현립예술대학원 수료, 류큐고전음악 [安富雅류]현성회 교사(피리)
- 도요자토 미호 (豊里美保) : 地謡**
오키나와현립예술대학원 수료, 아에야마고전민요 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.

1부

[오키나와 류큐(琉球)왕실 시대 궁중음악과 무용 및 서민들의 노래]

오키나와는 여러 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, 각각 독자적인 문화가 살아 숨쉬고 있다. 풍어와 풍적을 신에게 기원하며, 자연에 감사하는 마음이 노래가 되고 춤이 되어 각각의 섬마다 축제로 표현되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다.

가키이데츠크(かきいで風): 류큐(琉球)무용 가운데 가장 격조 높은 무용. 지금은 결혼식 피로연이나 식전 행사용으로 공연되어 축전용 무용으로 정착되었다

와카슈오드리(若衆踊り): 류큐(琉球) 왕국시대 국왕의 대관식 연회에서 소년들이 꽃으로 춤을 올리는 춤

요츠다케(四竹竹): ‘요츠다케’ 라고 하는 케스트네츠와 유사한 악기를 연주에 맞추어 추는 춤.

나세이오드리(二才踊り): [나세이]란 청년이라는 뜻이며 젊은 남성의 능률함을 표현. 리드미컬한 음악에 맞추어 시범시연하게 추는 춤.

오키나와가라테/고무도(沖縄空手・古武術): 고대 류큐의 무도와 중국에서 전해진 권법이 합쳐진 가라테를 무용으로 표현

Artist Profile

이케다 스구르 (池田章) : 사미센

오키나와 이리모테 후나우키(伊呂歌 輪浮) 출신. 19세에 이리모테 지마(伊呂歌) 예술제 참가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음악활동 시작.

2000년 10월 [섬사람들]이라는 곡으로 데뷔하였으며, 이 곡은 일기예보 BGM으로 쓰여 주목 받은 바 있다. 지금까지 총 9장의 CD를 발표하였으며 그 중 여러 곡이 CM송으로 채택되는 등 오키나와 현대 TV에서 그의 음악을 자주 접할 수 있다.

가나기와 테츠야 (金川哲也) : 기타

오키나와 출신의 대표적인 기타리스트. 아미네코음악대, 카지노후리크루스 다수 참가.

2부

[사미센 연주자 이케다 스구르 콘서트/ 기타: 가나기와 테츠야]

섬사람(島の人): 도시에 처음 떨어져 개단게 된 섬의 따뜻한함과 사귄 사람들의 정겨움을 그린 데뷔곡

치바리요(ちばりょ, 힘내라): ‘여러 힘든 일이 있지만 힘내라! 안 된다는 생각이 들 때도 다시 힘을 내자, 그래도 안될 때는 좀 쉬어가자’ 라는 내용의 응원가

할머니의 노래(おばあちゃんの唄): ‘건강이 제일이 아니란다. 꽃화가 가장 중요하단다.’ 라고 알려주신 늘 다정했던 할머니를 그린 곡

반란(反乱): 삶의 회로애락과 언제나 따스하게 감싸주는 태양과 달을 그리며 하루를 살아가는 궁정의 힘 노래

나의 고향(おれのふるさとへ): 인구 44명, 이케다의 고향 후나우키(輪浮), 남쪽의 섬마을, 멋진 후나우키로의 초대

백합화(百合の花): 전쟁으로 다 타버린 빌판이었던 오키나와가 지금은 백합화가 피는 아름다운 섬이 되었네. 오키나와의 아름다운 바다를 주제로 한 곡

봄꽃에 입맞춤하자(春の花にキスしよう): 모든 동물과 살아있는 것들로부터 용기와 힘을 받아 걸어가는 응원가

풍요(豊島) ~ 八重山民謡, 아에야마 민요: 풍요로운 사키에다(崎枝)의 마을의 풍성한 논과 맑은 물, 아름다운 여성을 노래한 곡

가타미의 노래(かたみ唄) ~ 八重山民謡, 아에야마 민요): 변치 않는 사랑을 노래한 아에야마의 민요

전지부(高麗部) ~ 八重山民謡, 아에야마 민요): 조개집이 난 달이 걱정 끝에 돌아오자 가라테 넘쳐 부르는 노래